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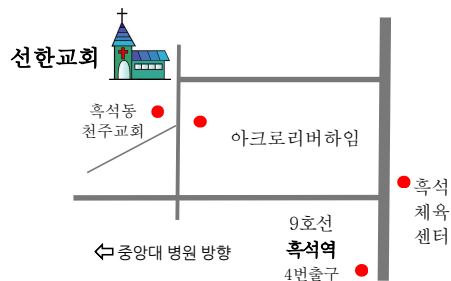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2부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요 셉 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오전 1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1: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안 나 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협 력 교 회	오 인 숙, 한 배 선
	교 육 목 사	정 용 준		가 슴 뛰 는 교 회 (원 종 선 목 사)
	협 동 목 사	홍 진 표		기 뽀 교 회 (유 성 은 목 사)
	교 육 전 도 사	윤 영		주 안 에 교 회 (이 정 필 목 사)
	협 력 전 도 사	오 효 남		주 의 뜰 교 회 (김 대 열 목 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김 만 조, 이 금 춘, 조 나 단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조 계 승 (집 사 장)	관 리 장 로 500/50 교 회	손 석 규 (1호) 필리 핀 Good Church (2호) 세종 선 한 교 회 (신 원 섭 목 사)	
	박 영 근, 윤 호 중			
	편 도 선, 이 태 수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 12: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90장 (통일찬송가 98장)	
교 독 문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찬 양 과 경 배	360장 (통일찬송가 402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2장 1~17절	삼하 16:5~12	
설 교	두 번째 환상: 용과 여자 (임춘배 목사)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심인섭 집사 가정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허정미 집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41장 1~14절		
설 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임춘배 목사)		
찬 양	383장(통일찬송가 433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 임춘배 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시편 128편 1~6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바울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지 방 회	서울남부지방회가 10일(화) 오전 11시 선한교회에서 있습니다.	
3. 헌 신 예 배	22일(주일) 오후 예배는 루디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4. 국 내 선 교	2025년 국내 선교 1) 날짜: 7월 21일(월)~23일(수) 2) 장소: 원주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3) 내용 ① 주제: '청청 페스티벌' ② 내용: 노방전도, 찬양집회, 청소년 초청 교제 모임 4) 참가 신청: 국내선교부 전희영 집사	
5. 라이즈업기도회	2025 Rise Up Baptist 전국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 6월 1일(주일)~13일(금) 매일 저녁 7시 30분 / 전국 12개 교회 장소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진행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영적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	---

찬송 : '목마른 자들아' 526장
본문 : 이사야 55장 6~13절

말씀 :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인생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깨달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곧 온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놓쳐 버려서 영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너무나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3절)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 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신경을 쓰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하는 자리를 세상의 물질과 탐욕으로, 술과 오락으로,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전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이 그들의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천국 문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받을 만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목

두 번째 환상: 용과 여자 (계 12:1~17)

서 론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재앙 시리즈 전에 몇 가지 막간 장면들을 봅니다.

1. 막간 장면1

(1)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 (악의 3인조)

①붉은 용(12장) ②바다에서 나온 짐승(13:1-10) ③땅에서 올라온 짐승(13:11-18)

(2) 12장의 세 장면: ①용과 여자의 전투(12:1-6) ②용과 미가엘의 전투(12:7-12) ③용과 여자의 전투(12:13-17)

본 론 (3) 용과 싸워 이기는 법: ①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11절) ②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17절)

2. 교훈

(1) 붉은 용과 여자는 누구인가?

(2) 용과 여자의 전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용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법은?

결 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이태수 장로
2부 예배 헌금	안혜진 집사	박대수 집사
오후 예배 기도	허정미 집사	심인섭 집사
주 방 봉 사	바울회	청소년부/청년부

매일 Q.T.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보호하는 도피성	날짜 : 6월 9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본문	민수기 35:9~21		
말씀요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하십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요단 동쪽에 세 개, 가나안 땅에 세 개의 도피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도피성의 목적과 기능 35:9~15 하나님이 도피성 여섯 개를 정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용납하시듯, 내가 용납할 타인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고의적 살인과 처벌 35:16~21 고의로 남을 살해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민수기 35장 15절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 치사를 구별해 살인죄를 재판하게 하십니다. 과실 치사를 범한 사람은 유족들로부터 피의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에게도 열려 있는 안전한 은신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죄에 따르는 두려운 대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결국 저를 언제나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늘 저를 생명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잘못에 대해 정직하고 분명하게 책임지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광야 여정과 하나님 명령

찬양과 기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413장), 악한 나로 강하게		
목상 나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이야기 속으로	198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든 강렬한 이 문장은 당대에 크게 히트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선택이 있는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려 있다.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도 선택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5).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가롯 유다는 은전 30개를 선택했고,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보여 주는 모습이 다르다. 미움이 아닌 용서를, 완악함이 아닌 겸손함을, 저주가 아닌 복을,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다.		
말씀나누기	민수기 33:38~56		
목상포인트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 기록된 장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 줍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머물렀던 지역을 일일이 기록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압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15절에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6~36절에는 시내산에서 신광야의 가데스까지, 37~49절에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총 42개의 지명이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50~5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며,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십니다.		
관찰과목상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나요?(52~54절)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55절)		
적용하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와 두려움, 신뢰와 의심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된 우리 또한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신앙 여정은 끊임없는 기억과 신뢰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삶에서 문제가 될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우상이나 산당 같은 것들을 분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제게 통찰력과 결단력을 주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날짜 : 6월 13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본문	시편 73:15~28		
말씀요약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종말과 파멸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신을 주님이 그분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목상질문 1	성소에서 깨달은 진실 73:15~22 시편 기자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깨달았나요? 불의한 세상에서도 내가 선을 행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시편 73:23~28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 내가 가까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73편 17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이 전멸하는 종말을 깨닫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성도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현실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소망으로 땅의 절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한낱 꿈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대제사장의 죽음에 담긴 대속의 은혜	날짜 : 6월 10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본문	민수기 35장 22~34절		
말씀요약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도피성에서 나가면,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를 죽여도 죄가 아닙니다. 한편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목상질문 1	도피성과 재제사장 35:22~29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가도 안전한 때는 언제였나요? 내가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적은 언제였나요?		
목상질문 2	살인죄에 대한 처벌 규례 35:30~34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가 멀리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35장 28절 도피성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의 보복에서 벗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일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해방되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죽음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 마땅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제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피성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	날짜 : 6월 11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민수기 36:1~13		
말씀요약	므낏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슬로브핫의 기업을 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조상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는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사람과 결혼해 기업을 보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목상질문 1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 문제 36:1~4 므낏세 지파 사람들은 슬로브핫 딸들의 기업에 관한 무슨 문제를 제기했나요? 나와 우리 가족이 지킬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의 해결 방안 36:5~13 슬로브핫 딸들은 하나님의 해결 방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민수기 36장 8~9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은 영구적인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편입되어 영구적인 매매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슬로브핫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 조상의 기업을 지킵니다. 기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약속 성취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약속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희에게 주신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기 위해 때로 권리와 자유에 제한이 생길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 나가게 하소서. 제 삶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매일 Q.T.		믿음을 흔드는 부조리한 세상	날짜 : 6월 12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본문	시편 73:1~14		
말씀요약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자 질투가 나서 넘어질 뻔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도 고난 없이 항상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악인을 보며, 깨끗하게 산 것이 헛되다고 한탄합니다.		
목상질문 1	부조리한 세상 73:1~3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했나요? 악한 사람이 형통한 현실은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목상질문 2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 73:4~14 고난과 불행을 겪지 않고 형통한 악인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내게 실망과 회의를 안겨 주는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73편 1~2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인의 형통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려 힘쓰며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실상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고백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에도 최후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형통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